

중학생의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의 관계

송금숙* · 박정환**

목 차

요약	Ⅲ. 연구 방법
I. 서론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Ⅱ. 이론적 배경	V. 결론

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흡연 경험과 흡연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정착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역에 소재한 8개 중학교 1, 2, 3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한 조사를 통해 1,48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 1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차분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제주도내 중학생의 흡연 경험은 흡연 관련 요인과 흡연 지식 간에 가정환경 요인, 학교생활 환경 요인, 사회 환경 요인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경험이 높을수록 흡연 지식은 낮게 나타나는 상반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하는 범국가적 문제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며, 또한 교육정책 차원에서 흡연예방 시범 연구학교가 지정·운영되어야 하고, 각 학교·급별에 적합한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 정규 교육과정 속의 교과내용으로 실시하여야 됨을 시사하고 있다.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I. 서 론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인지, 정의, 그리고 신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전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교육 환경은 그러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학교가 경쟁 사회로 변하고 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실패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실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식만을 강조하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의도하지 않았던 교육의 병리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학교의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학생 문제 중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흡연 문제일 것이다.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해야 할 성장기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흡연은 친구들과 어울려 음주, 폭력, 절도와 같은 비행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5)가 1988년 이후부터 2005년도까지 1~2년 간격으로 실시해온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년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은 남자 중학생 4.2%, 남자 고등학생 15.7%로 1988년에 비해 남자 중학생은 4.2배 증가하였지만, 남자 고등학생인 경우는 오히려 1.2배 감소하여 중학생의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3.3%, 여자 고등학생은 6.5%로 1991년에 비해 여자 중학생은 2.8배, 여자 고등학생은 2.7배나 증가하여 여자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청소년 흡연율이 매년 증가하여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은 물론, 백해무익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한 사회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1979년 12월에 개정된 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하면 법률상 성년이 되지 않는 자, 즉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익연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친권자의 의무)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가 미성년자의 익연 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주왕기, 1992). 한편 보건복지부는 금연 시설을 신규 지정하고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청소년,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현재 각급 학교에는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외래 방문객은 물론 교직원, 학생은 교사(校舍)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간접흡연의 폐해와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철저히 집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흡연 예방교육 활동도 아직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보건교사, 보건업무 담당자의 관심과 열의에 따라 학교 독자적으로 계획 시행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중복 또는 편중되어 있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 과정 중 적극적 대처 활동으로 흡연 시작을 조기에 차단하는 흡연 예방책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흡연 문제를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생활지도의 핵심 과제로 보고, 제주도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흡연 경험과 흡연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정착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흡연의 특징

청소년기는 전 생애의 발달 차원에서 특유한 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는 시기로 이후 성인의 건강한 생활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유해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흡연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남자보다는 여학생의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선하(2001)는 이처럼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사회 전체적으로 흡연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며, TV에서 연예인들과 사회 지도층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는 등 어느 곳에 있건 담배 피우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

둘째, 청소년의 흡연을 말리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의 흡연을 말리는 부모, 선생님 그리고 어른이 전과는 달리 거의 없어졌다는 점이다.

셋째,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구입 제한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담배 광고는 청소년들을 미래의 고객으로 유혹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화려한 성인 잡지나 경주용 차에 부착된 담배 광고를 보고 흡연은 멋있고 우아하며 매력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넷째, 청소년의 흡연 시작은 흡연하는 친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 흡연 시작 동기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흡연 동기 중 가장 많은 이유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흡연은 생리적 욕구에서라기보다 심리적 작용에 의해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성인에 대한 모방심리, 친구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어른이 다 된 남자로 인정받고 싶은 자기 과시욕, 호기심,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 친구와 어울리기 위한 방편, 사회적인 억압과 권위에 대한 반항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박명윤, 1998).

2.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속하여 청소년의 흡연을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은 상당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왔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와 1980년대 학교 자율화의 영향에 따른 교복 및 두발 형태의 자유화 등으로 학생들에 대한 행동의 제약이나 통제가 줄어들고, 양담배의 수입과 광고 및 판촉의 영향, 무분별한 판매 등으로 흡연이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흡연은 사회규범에서 청소년 범죄 및 마약과 접촉하는 첫 단계로서 비행으로 연결되며,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의 흡연, 음주 등이 비행 행위보다 먼저 일어난다. 1989년 체육부에서 발간된 청소년 약물 남용 실태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약물 상호간의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흡연은 음주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고, 그 다음이 본드, 최면제, 대마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승구(199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의 97%(남), 39.3%(여)가 흡연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또 신체적 발육이 미완성 단계인 청소년들은 세포와 조직이 아직 연약한 상태이므로 흡연 연령이 낮을수록 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흡연 폐해의 심각성으로 한 동안 사라져 가던 폐결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5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사망 위험비가 18.7배에 달하고 15~19세 때 시작할 경우 14.4배, 25세 이상이면 5.2배로 점차 낮아진다. 따라서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는 흡연량 뿐만 아니라 담배를 처음 피우는 연령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체발육에 나쁜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성인병을 조기에 발생시킨다. 더구나 가임기를 거칠 여학생의 흡연은 더욱 위험하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게 될 여성의 흡연은 여성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 기형아등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흡연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청소년의 흡연 관련 요인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피우는 데에는 단일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상호 관련된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요인들은 개개인들에게 다양하게 작용한다.

양만우(1983)는 가정적인 요인, 학교 요인, 사회 요인으로 분류하고, 윤덕중(1984)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갖게 되는 원인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 급변한 사회 변화에 의한 자극과 압력, 교육의 부조화를 들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 요인에 대한 통일된 견해는 개체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비행과 흡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 가정 환경 요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과 관계를 맺게 되며 또 가족과의 생활을 통해 기초적인 일상생활의 습관을 익히고 사물에 대한 태도, 습관, 가치관, 성격 발달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가정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가정의 기능 장애로 인하여 애정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한 청소년들은 사회의 압력과 유혹에 의해 범죄에 빠질 위험이 크다(김혜란, 1994).

부모의 흡연이 자녀의 흡연 행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헌들이 많이 있다. 사회 학습이론에서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사람을 본보기로 하여 행동함으로써 학습된다(Bandura, 1977).

김현수(1989)는 부모의 흡연 습관이 청소년 흡연 습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Spielberg(1983)에 따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임태빈(1976), 심은희(1988) 등도 부모의 흡연과 청소년의 흡연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장영미(1991), 이계은(1992)은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지 못하고 자녀간에 친밀성이 없고 의견 존중도가 떨어질수록 흡연 경험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유영식(1984)과 지인순(198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거부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한 학생은 수용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한 학생보다 흡연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나. 학교생활 환경 요인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사회의 생활양식과 규범을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내면화되도록 교육을 시키며 사회에의 적응을 용이하도록 하는 사회

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이다(정태훈, 1988). 이처럼 청소년기의 학교는 가정만큼이나 때로는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모의 보호를 떠나서 장래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기로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바로 그들의 생활 자체가기도 한다.

민영순(1991)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범,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정서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학교생활 적응으로 보고 학교생활의 조화와 만족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진희숙(1994)은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이 크면 클수록 청소년들은 다른 것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적 갈등이 커 흡연에 더 개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남재봉(1992)은 학업 성적이란 청소년 미래의 사회 경제적 지위 획득의 현재적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위 특성으로 청소년의 비행 행위를 설명하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보았으며 학업성과 비행과의 관계에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비행 집단에 속해 있었다고 하였다. 장상희(1985)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고 있는 반면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은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배를 쉽게 찾는다고 하였다.

진희숙(1994)은 중학생 1,383명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43.8%가 스트레스를 흡연 동기 중 1위로 꼽고 있어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건전하지 못한 흡연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영빈(1995)은 방과 후 학습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학생 흡연율이 높다고 하였으며, 김성이(1989)는 숙제와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흡연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학습 시간이 흡연과 상관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Bank(1981) 등의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친구들 대부분이 흡연을 하고 있으며 흡연을 하지 않으면 조롱당하며 흡연하는 친구와 있을 때 흡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은 친구의 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을 우정으로 생각하거나 그룹에 대한 확실한 소속감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 교우 관계와 흡연 여부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영미(1991), 이영빈(1995) 등의 연구에서는 방과 후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흡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학생을 사회화시키고, 학습의 동기유발로 학문의 세계를 일깨워 주며, 새로운 가치의 전수와 과학적 소양을 증진시키는 등 매우 다양하다(임주영, 1984). 이처럼 교사는 학생들과 맺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현 제도 속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입시 문제, 교육과정 문제, 과밀 학급에 대한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장 과정의 학생들은 수없이 많은 요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요구로 갈등을 빚게 되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됨으로 결국 심한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학교는 학업에 대한 기대감과 학교생활을 통한 만족감이 존재하여야 하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자아를 발견하며 건전한 정신세계와 신체를 가꾸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다. 사회 환경 요인

매스미디어는 사회의 각 하부체계를 연결시키는 상호작용과 문화전송의 본래적 기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인간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 및 사회에 중요하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완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기적 특성대로 많은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형성해 나아가므로 각종 대중매체와 광고는 청소년들의 사고와 감정 및 생활양식에 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권연순(1994)은 특히 TV, 영화 같은 매체에서 인기 연예인들의 흡연하는 장면, 담배 광고 선전 등 흡연을 조장하고 용납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은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순남(1999)은 사춘기에 처한 청소년들은 드라마나 영화 속의 모델의 매력적이고 강력한 인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쉽게 모델의 행동을 학습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거주환경을 보면 거대도시의 뒷거리는 청소년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곳이 되기도 한다. 강대운(1996)은 거주환경에 따른 흡연자 및 흡연 경험자는 유흥가 주변 40.9%, 단독 주택 35.9%, 시장·상가 지역 34.5%, 아파트 단지 27.1% 순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장영미(1991), 이은영(1992)의 유흥가 출입 횟수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유흥가 출입이 잦을 때 흡연율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4. 흡연 지식

흡연에 대한 지식이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말하며 흡연 행동의 중재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식의 중요성은 행동의 변화에 있다. 두 변수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식의 제공이란 정보를 한번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조작된 교과과정을 통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흡연에 대

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새롭게 이해하여 이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도를 강화하고 수정하여 올바른 건강 행위를 실천하게 하는 흡연 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의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1994)에서도 연구·이론 실무를 근거로 보건 및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청소년의 흡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여 학교 단위 사업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흡연예방을 위한 학교정책의 개발 및 강화, 흡연이 인체에 미친 장·단기 영향의 교육과 저항 훈련 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에 걸친 흡연 예방교육 제공, 교사를 위한 훈련 제공, 부모와 가족의 참여 유발, 학생과 교사의 금연 지지, 정기적인 프로그램의 평가 등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황라일, 1998).

청소년 여학생 흡연 실태 연구에서 1988년 이래 흡연의 해악에 대한 지식은 꾸준히 증가하여 90%이상 학생이 흡연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었고(지선하, 2001) 흡연 학생일수록 비흡연 학생에 비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 정도가 낮았으며 자신의 금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연운동에 대해서는 흡연 학생의 80.8%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경아·장주동, 2002).

현재 담배를 피우는 학생의 경우 흡연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학생은 21.5%에 불과하며 흡연을 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와 흡연에 대한 유해성을 경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흡연의 해악을 경시하는 태도는 청소년의 인격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흡연 해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흡연 예방교육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흡연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흡연 행위를 감소시키며 금연 효과까지 가져오는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참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최선의 교육이 될 것이다.

5. 선행 연구 고찰

흡연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선진국의 흡연 인구는 많이 감소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여성의 흡연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흡연을 조사 결과는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 흡연이 날로 증가한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김선희(1997)의 연구에서는 흡연 학생 중 흡연 시작 시기가 초등학교 때가 37.6%로 가장 높았는데 공터에서 흡연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68.2%가 금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생활에 별 흥미를 못 느끼는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영희(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은 주로 호기심으로 흡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흡연

을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었던 학생일수록 흡연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중간이거나 낮은 학생일수록 높은 학생에 비해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서일(1988) 등의 흡연 학생의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 중의 흡연자가 있는 경우 청소년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 상태가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으며 자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학생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현미(2002)의 흡연 실태 연구에서는 흡연 친구가 없는 학생보다 흡연하는 친구가 있는 학생이 더 많았으며, 흡연 경험 여부는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이 74.5%로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 25.5%보다 더 많았다. 남학생과 생활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그리고 학교생활에 불만족 하는 학생일수록 흡연 경험은 더 많았다. 흡연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대한 결과는 흡연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엄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가 보통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흡연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영(1995)의 연구에서는 흡연군보다 비흡연군의 흡연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흡연 여부와 관련은 있지만 확실한 결정적 관련 요인은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광옥 등(2000)의 연구에서도 흡연 경험이 있는 군(평균 11.1점) 보다 흡연 경험이 없는 군(평균 12.2점)이 흡연 지식 점수가 더 높았고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의 흡연 경험은 흡연 동기, 시작 시기, 성적, 교사의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으며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교 적응도, 경제 수준, 흡연 지식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내 중학교 8개교를 표집 대상으로 하였는데, 특히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유충 표집 즉,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각각 2개교에서 각 학교당 학년별로 2개 학급의 학생을 표집하였다.

2005년 12월에 1,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490매를 회수하였는데, 그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으로 자료 처리에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1,481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도구는 박종태(1994), 김선희(1997), 심희구(1999), 백경옥(2001) 등이 사용한 질문지를 참고로 연구자들이 협의하여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가정 환경 요인 6문항, 학교생활 환경 요인 8문항, 사회 환경 요인 3문항, 흡연 지식 18문항 등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처리

흡연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의 반응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고, 각 요인별 흡연 경험과 비흡연 경험과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흡연 지식은 Likert Type의 3단계 척도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을 '그렇다'에 3점, '아니다'에 2점, '모르겠다'에 1점을 부여하여 계량화한 후 처리하였고, 부정적 문항 16, 17, 18번 문항은 역채점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보여 준다. 또한 흡연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간의 차이와 흡연 경험에 따른 흡연 지식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for Windows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가정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흡연 지식이 가정 환경 요인(부모와의 동거 여부, 가정 경제 생활수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흡연 여부, 부모 흡연의 영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가정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

	가정 환경	N	M	SD	F	p
부모와의 동거 여부	아버지, 어머니 계심	1,272	46.94	4.75	6.726	.010*
	아버지(또는 어머니)만 계심	209	46.00	5.49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안 계심					
가정 생활수준	부유한 편이다	120	46.88	5.03	.416	.659
	보통이다	1,182	46.85	4.83		
	빈곤하다	179	46.50	5.05		
부모와의 관계	긍정적이다	921	47.13	4.59	5.464	.004**
	보통이다	482	46.25	5.14		
	부정적이다	78	46.41	5.99		
부모의 양육 태도	민주적이다	939	47.20	4.43	6.383	.000***
	권위적이다	338	46.28	5.26		
	독재적이다	91	45.46	5.67		
	방임적이다	113	46.19	6.00		
부모의 흡연 유무	부모 모두 피운다	60	45.52	5.67	2.348	.096
	아버지만(어머니만) 피운다	836	46.92	4.58		
	부모 모두 안 피운다	585	46.78	5.16		
부모의 흡연 영향	많은 영향을 준다	389	47.58	4.17	4.273	.002**
	조금 영향을 준다	354	46.80	4.56		
	그저 그렇다	255	46.45	4.67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2	46.95	5.39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371	46.21	5.66		

*p<.05, **p<.01, ***p<.001

<표 1>에서와 같이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계신 학생(46.94)이 아버지(또는 어머니)만 계시거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안 계신 학생(46.00)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학생(47.13)이 가장 높고 보통인 학생(46.25)이 가장 낮게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흡연 지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민주적'인 학생(47.20)이 가장 높고 '독재적'인 학생(45.46)이 가장 낮게 나타나 부모의 양육 태도가 민주적일수록 흡연 지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부모의 흡연 영향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부모의 흡연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학생(47.58)이 가장 높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학생(46.21)이 가장 낮게 나타나 부모

의 흡연 영향이 많을수록 흡연 지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이 가정 환경 요인의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에는 흡연 경험이 많을수록 흡연 지식이 낮게 나타나 서로 부적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금연에 솔선수범하는 생활과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관심을 기울이는 가정교육이 흡연예방의 기초가 됨을 시사하고 있다.

2. 학교생활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흡연 지식이 학교생활 환경 요인(학교생활 만족도, 학교 성적, 선생님과의 관계, 선생님의 흡연 모습,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 학습 시간, 방과 후 보내는 장소, 흡연하는 친구 수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학교생활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

학교생활 환경 요인		N	M	SD	F	p
학교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162	47.36	5.92	2.979	.018*
	약간 만족한다	508	47.18	4.35		
	그저 그렇다	551	46.67	4.84		
	약간 불만이다	161	46.01	4.21		
	매우 불만이다	99	46.10	6.25		
학교 성적	매우 잘한다	74	46.22	7.09	10.049	.000***
	잘하는 편이다	288	47.67	4.39		
	중간이다	663	47.22	4.21		
	낮은 편이다	345	45.98	5.24		
	매우 낮다	111	45.05	5.90		
선생님과의 관계	매우 좋은 편이다	139	46.76	5.56	5.196	.000***
	약간 좋은 편이다	413	47.54	4.01		
	그저 그렇다	788	46.60	4.87		
	약간 안 좋은 편이다	68	46.87	5.15		
	매우 안 좋은 편이다	73	45.03	6.78		
선생님의 흡연 모습	흡연 충동을 느낀다	38	44.11	6.34	26.865	.000***
	아무 생각이 없다	469	45.71	5.93		
	금연했으면 좋겠다	974	47.44	4.05		

학교생활 환경 요인		N	M	SD	F	p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바로 집에 간다	490	46.77	5.29	1.938	.121
	1시간 이내	448	47.04	4.78		
	1~2시간 정도	323	47.00	4.44		
	2시간 이상	220	46.14	5.23		
방과 후 학습 시간	1시간 이내	590	46.51	4.95	1.548	.200
	1~2시간 이내	428	46.93	4.90		
	2~3시간 정도	240	47.27	4.71		
	3시간 이상	223	46.87	5.60		
방과 후 지내는 장소	학원	351	47.21	4.27	3.393	.017*
	독서실, 기타	163	46.29	5.36		
	집	858	46.89	4.87		
	PC방	109	45.70	5.68		
흡연하는 친구 수	전혀 없다	1314	46.91	4.75	5.198	.023*
	2명 이하~5명 이상	167	46.00	5.69		

*p<.05, ***p<.001

<표 2>에서와 같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매우 만족'하는 학생(47.36)이 가장 높고 '약간 불만'인 학생(46.01)이 가장 낮아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흡연 지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학교 성적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잘하는 편'인 학생(47.67)이 가장 높고 '매우 낮다'는 학생(45.05)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선생님과의 관계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약간 좋은 편'인 학생(47.54)이 가장 높고 '매우 안 좋은 편'인 학생(45.03)이 가장 낮게 나타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흡연 지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선생님의 흡연 모습을 인식하는 데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금연했으면 좋겠다'는 학생(47.44)이 가장 높고 '흡연 충동을 느낀다'는 학생(44.11)이 가장 낮게 나타나 선생님의 흡연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흡연 지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방과 후 지내는 장소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학원'인 학생(47.21), 이 가장 높고 'PC방'인 학생(45.70)이 가장 낮게 나타나 방과 후 학습이 지속되는 장소가 있을수록 흡연 지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흡연하는 친구 수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흡연하는 친구가 '전혀 없는' 학생(46.91)이 가장 높고 '2명 이하~5명 이상'인 학생(46.00)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이 학교생활 환경 요인 가운데 학교 성적, 선생님과의 관계, 선생님의 흡연 모습에 대한 인식에 따른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입시 위주의 교과 지도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능력과 인성 개발을 위한 내용 중심으로 학교 교육목표를 전환하고, 교사에 대한 흡연예방 관련 연수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는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효과적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금연 교육과 예방교육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거시적인 학교교육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사회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흡연 지식이 사회 환경 요인(거주지, 유흥가 출입 횟수,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흡연 장면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사회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사회 환경 요인		N	M	SD	F	p
거주 장소	주택가, 연립 및 아파트 단지	1121	46.83	4.81	.104	.747
	그 외 기타 지역	360	46.74	5.07		
유흥가 출입 횟수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394	47.24	4.92	4.086	.017*
	1~2회	908	46.78	4.72		
	3회 이상	179	45.99	5.39		
영화나 TV드라마 속의 흡연 장면	매우 멋있어 보인다	38	44.42	6.67	2.876	.022*
	약간 멋있어 보인다	121	46.36	5.18		
	그저 그렇다	788	46.84	4.66		
	약간 나쁘게 보인다	251	46.99	4.44		
	매우 나쁘게 보인다	283	47.08	5.31		

*p<.05

<표 3>에서와 같이, 유흥가 출입 횟수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학생(47.24)이 가장 높고 '3회 이상' 간 적이 있는 학생(45.99)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흡연 장면을 인식하는 데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매우 나쁘게 보인다'라는 학생(47.08)이 가장 높고 '매우 멋있어 보인다'는 학생(44.42)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 환경 요인 가운데 일주일 간 유흥가 출입 횟수와 영화나 TV 드라마 속 흡연 장면에 대한 인식에서 흡연 경험이 많을수록 흡연 지식은 낮게 나타나 서로 부(-)적인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흡연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의 인격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시킨 금연 및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법적 제재의 강화와 함께 흡연 해악에 대한 지식을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홍보하는데 정부가 앞장섬으로써 금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흡연 경험에 따른 흡연 지식

흡연 경험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흡연 경험에 대한 흡연 지식

구 분		N	M	SD	F	p
흡연 경험	무	1296	46.94	4.85	7.664	.006**
	유	189	45.89	4.90		

**p<.01

<표 4>에서와 같이 흡연 경험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흡연 경험자의 흡연 지식(45.89)이 비흡연자의 흡연 지식(46.94)보다 1.05나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는 흡연 지식이 높으면 흡연 경험은 낮게 나타난 김선희(1997), 정지연(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낮은 흡연 지식이 흡연 행동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 강화가 흡연 행동 감소의 지름길임을 시사하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 요인에 있어서 결손가정보다 정상적인 가정의 학생, 부모와의 관계가 부

정적인 학생, 부모의 양육 태도가 독재적·권위적인 학생,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학생일수록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흡연하지 않는 모습, 자녀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담긴 민주적인 양육 태도, 흡연의 해악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는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생활 환경 요인에 있어서 학교 성적이 낮은 학생,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 교사의 흡연 모습에서 흡연 충동을 느끼는 학생,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은 학생, 방과 후 학습 시간이 적은 학생, 방과 후 주로 집에서 지내는 학생일수록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과 지도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능력과 인성개발을 위한 내용 중심으로 학교 교육환경을 전환하고, 학생상담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며, 또래 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교우관계를 유도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 환경 요인에 있어서 유흥업소 출입 횟수가 많은 학생,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흡연 장면을 멋있게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사회·문화적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중매체가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국가사회의 전폭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지원·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성격 및 지역, 가정 환경 요인 중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양육 태도, 학교생활 요인 중 학교 성적과 교사와의 관계 및 교사의 흡연 모습에 대한 인식, 사회 환경 요인 중 일주일 간 유흥가 출입 횟수와 영화·TV 드라마 속 흡연 장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흡연 경험이 많을수록 흡연 지식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이성적·자율적 판단을 통하여 흡연을 자제할 줄 아는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흡연예방 연구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과정 속에 흡연 폐해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켜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흡연에 관련된 흡연 예방교육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각 학교·급별에 알맞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꾸준한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대운(1996). 인문계 고등학생의 흡연 실태와 학교생활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교육부 고시(1992). 제6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중학교 교육과정. (주) 대한
 교과서.
 교육부 고시(1997).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77-12호) 중학교 교육과정 (별책 3).
 (주) 대한교과서.
 김상영(1995). 농어촌과 중소도시 국민학교 6학년생의 흡연 실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성이(1989). 청소년 약물 남용 상태와 예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김선희(1997). 청소년들의 흡연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태숙(2003). 청소년 흡연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현수(1989). 청소년 약물 문제. 중앙의대지. 34.
 김현미(2002). 청소년 흡연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혜란(1994).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생태학적 개입.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권승구(1992). 배꼽으로 나오는 담배 연기. 서울: 도서출판 365일.
 권연순(1994). 담배 : 현대인을 위한 금연백과. 서울: 등지.
 남재봉(1992).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남옥희(1994). 여고생 흡연집단과 비흡연 집단의 자아개념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민영순(1991). 여고생의 흡연에 따른 지식,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명윤(1998). 청소년 흡연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 연구. 제28호. 한국청소년 연구원. 26.
 박종태(1994). 고등학교 학생의 흡연 실태 분석.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현미(2003). 경기도 지역 중학생의 흡연 실태와 관련 요인 조사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보건복지부(2006).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42.
 백경옥(2001). 부산지역 중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사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서일 외 5인(1988). 전국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흡연 실태. 한국역학회지. 제10권 2호.
 신길자(2001).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 행동과 관련 요인.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심은희(1988). 서울특별시 여고생의 흡연 실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심희구(1999).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흡연 실태와 선도 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송명자(2000). 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연희(1997). 중학교 여학생의 흡연 실태 및 관련 요인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광옥, 최혜영(2000). 초등학생의 흡연 지식, 흡연 태도와 흡연 행동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 이성진(1994). 교육 심리학 서설. 서울: 교육과학사.
- 이은영(1992). 흡연 고등학생의 심리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계은(1992). 여고생의 흡연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흡연 지식, 흡연 태도, 건강행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영빈(1995). 중·소도시 중학생의 흡연 행위와 관련 요인 분석.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익수(1993). 청소년 흡연 행동. 서울: 청소년상담원.
- 임주영(1984).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예방 대책.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태빈(1976). 고등학생의 흡연 실태 조사 및 그 선도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만우(1983). 청소년 범죄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논문집. 제 19집.
- 유일경(2000). 청소년의 흡연 경험과 학교생활, 가정환경, 흡연 지식 간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영식(1984). 비행 청소년의 담배 흡연 상관 변인 분석. 신경정신의학. 23(3). 274-288.
- 윤덕중(1984). 범죄와 소년 비행학. 서울: 법문사.
- 윤영옥(1998). 시내 일부 중학교의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경아, 장주동(2002). 일부 지역 청소년 등의 흡연 실태.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상희(1985). 청소년 흡연 행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 총론. 4-1. 청소년보호위원회.
- 장영미(1991).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 행위와 관련 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영희(1995). 청소년 음주, 흡연과 학교생활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지부용(2002). 강릉시 중학교 여학생의 흡연 실태 및 관련 요인 조사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지인순(1989). 중학생의 흡연 수용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지선하(2001). 청소년 흡연 문제의 심각성. 금연지도자 교육 교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31-40.
- 진희숙(1994). 청소년 흡연, 음주 및 약물남용의 실태와 요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주왕기(199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대책에 관한 연구. 체육청소년부.
- 정지연(2002). 일부 중학생의 흡연 실태와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태훈(1988). 여성에서의 흡연. 흡연과 건강. 대한결핵협회. 64-73.

- 제주도교육청(2006).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06 학교보건 기본 방향. 12-15.
- 최순남(1999).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한신대학교 출판부.
- 최정훈(1987). 심리학. 서울: 법문사.
- 최희곤(2001). 청소년 흡연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0). 흡연과 건강. 85.
-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5). 2005 전국 중 고등학교 학생 흡연 실태조사. 4-9.
- 황라일(1998). 흡연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 Banks, M. H., Bewley, B. R., & Bland, J. M. (1981). Adolescent attitudes to smoking their Influence on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24(1), 39-44.
- Spielberger, C.D. etal(1983). On the revolution between family smoking, habit and the smoking behavior of college of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32(1).